

활동 계획서

입국일

귀국일

지망이유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입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같은 것이 없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K-POP에 처음 만났고, 유일하게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K-POP을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나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특히 한국어는 K-POP의 가사로부터 한국어 번역과 일본어 번역을 비교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후, 대학 시대에는 더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지게 되었고, 대학 수업에서는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실제로 한국에는 몇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에 현지에서 처음 먹은 한국요리에도 관심을 갖고, 일본에 돌아간 후도 집에서 한국요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알기 위해 TOPIK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러 번 다녀오는 동안 현지에서도 한국인 친구가 생겼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를 사용하여 함께 대화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동안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보다 깊게 한국의 문화 체험이나 식사, 관광을 하고, 자신이 아직 모르는 한국의 매력을 알고 하고 싶게 된 것이 이번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특히 나는 지금까지의 여행의 대부분을 서울이나 부산의 중심적인 관광지에 갔을 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나 행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취득했을 때에는 서울이나 부산 이외의 지역에도 가서 평생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 한국의 전통 문화, 현대 문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한정된 귀중한 시간 속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행동해 자신감과 힘을 익히고 싶습니다.

활동 계획

2023년2월	한국 입국 외국인 등록 신청 아파트에 입주 생활품 구입
2023년3월	어학당 입학 집이나 카페에서 한국어 학습 지하철을 이용하여 부산시내 관광 한일교류회에 참가 돼지국밥, 해물파전 등의 부산음식 체험
2023년4월	아침에는 어학당에서 수강, 오후는 집이나 카페에서 한국어 학습 네일샵에서 관리받아보기. 휴일은 서면에서 쇼핑이나 카페 순회 TOPIK 응시 감천동문화촌에서 한복을 입고 관광
2023년5월	아침에는 어학당에서 수강, 오후는 집이나 카페에서 한국어 학습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 찾기 남포동에서 빈티지샵 순회 해운대 부산아쿠아리움 수족관 관광

	한일교류회에 참가
2023년6월	아르바이트 한국어 학습 부산 기장 롯데월드 관광 태종대 수국 축제 관광 해운대 신세계 스파랜드에서 찜질방 체험
2023년7월	아르바이트 한국어 학습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다수영 자갈치 시장 관광 대구로 당일치기 여행
2023년8월	아르바이트 한국어 학습 한국 요리 교실에 단기 교육 보령 매드 페스티벌 체험 김해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한일교류회에 참가
2023년9월	아르바이트 한국어 학습 1일 도예 체험에 간다 BIFF 광장에 가서 포장 마차와 쇼핑 관광 한국민속촌에 가서 한국의 전통 생활양식과 문화를 체험
2023년10월	아르바이트 한국어 학습 광안리 부산불꽃놀이에 가다 영도의 해녀 마을에서 김밥을 먹는다.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로 이동
2023년11월	아르바이트 한국어 학습 서울로 2박 3일 여행 부산실탄사격장에서 사격체험 울산 간월제에 가서 피크닉
2023년12월	아르바이트 한국어 학습 양산시 에덴밸리 스키장에서 스키 범어사에 가서 템플스테이 체험 경주로 가서 첨성대, 불국사 등의 신라 유적지 관광 한일교류회에 참가
2024년1월	귀국 준비

귀국 후 계획

저는 한국에서 귀국하면 한국에서의 실생활에서 배운 것을 살려 한국의 매력을 발신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어 공부나 한국에서의 생활, 방문한 관광지 등 자신이 실제로 체험하고 느낀 것과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보다 한국의 매력에 대해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 워킹 홀리데이 중에 참가할 예정인 한일 교류회에서 사이가 좋아진 한국인 쪽이나 일본인 쪽 모두 일본에 돌아가도 연락을 잡고, 한일 교류를 이어 가고 싶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한일교류회 등에

참가해 자신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느낀 것을 직접 대화하고 교류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광으로 방문한 장소를 친구나 가족에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나 가족은 아직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 안내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요리를 아주 좋아해서 한국요리교실에서 배운 요리를 일본에서도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